해남군,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활동 본격

해남군은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를 위한 군민추진단을 발족하고, 결의대회를 갖는 등 군민들의 의지를 모아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나서고 있다.

해남 마한역사문화권 복원정비사업 군민추진단은 읍면 주민대표를 비롯해 역사문화 전문가, 지역단체 대표, 언론인, 군의원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최근 결의대회를 갖고 마한역사문화권 사업의 군민 공감대 형성과 대외 홍보를 위한 범군민 캠페인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해남군은 군민추진단을 통해 추진 기반동력을 확보하고,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 유치를 위한 군민 역량을 결집해 나갈 예정이다.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는 지난 2021년 제정된 역사문화권 정비법에 기반해 마한역사문화권 주요유적의 발굴기록물, 보존유적, 비지정문화재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연구·전시·활용하는 거점 클러스터로 조성된다.

오는 2027년까지 약 4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한(韓)의 원류인 마한에 대한 연구시설이 변한, 진한에 비해 전무한 실정으로 재조명이 시급한 상황이다.

해남군은 마한 전시대(BC.2~AD.6)에 걸쳐 고고자료·문헌기록·민속자료를 보유한 유일지역이라는 점에서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입지의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있다.

군은 지난 2022년부터 마한역사복원 전담팀을 구성해 역사문화권 정책사업을 꾸준히 지속해 오고 있으며,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 수립과 문화재 시·발굴조사, 문헌 고증 및 마한민속 발굴, 디지털·영상기록화, 연구논문 및 발굴기록물 집성, 민관학 협력체계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윤보현 기자

해남군은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를 위한 군민추진단을 발족하고, 결의대회를 갖는 등 군민들의 의지를 모아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나서고 있다. /해남군 제공

진도군, 올해 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기간 운영

진도군이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결정·공시 전 열람과 의견제출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모든 개별주택에 대한 구조, 용도, 방위 등의 주택 특성을 조사한 후 가격 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마쳤다.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의견 제출기간은 4월 11일까지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진도군청 세무회계과·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대상은 개별주택 1만2천107호와 공동주택 1천920호이다.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가격과 사유를 적은 의견제출서를 진도군청 세무회계과 세정팀(061-540-3312)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은 재조사와 검증과정과 진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평 기자

보성군, 2023년 핵심과제 85건 선정

보성군은 2023년 핵심과제 85건을 선정하고, 보성군의 중단 없는 발전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분야 별 5대 추진 방침은 △소외 없는 복지, 든든한 행정, △다 함께 잘사는 농림축산어업, △매력 넘치는 문화 체육 관광, △안전한 군민과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권역별 지역개발로 균형있는 발전 등이다.

먼저 △소외 없는 복지, 든든한 행정 분야에서 보성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참전유공자 유족 수당 신설, 전립선 질환 검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등 복지 지원이 필요한 다양한 계층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유지, 군민 체감 규제 혁신,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 운영 등을 통해 든든한 행정을 구현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어업 분야에서는 보성키위 신규 과원 확대, 여자만 청정어장 재생, 신소득 아열대과수 재배단지 조성,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 최고품질 쌀 생산, 마을 전통숲 가꾸기 등의 과제가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로는 12개 핵심과제가 추진되며 보성군립국악단 활성화, 제11회 보성세계차엑스포와 제46회 보성다향대축제 등의 축제 활성화, 보성 차정원 조성, 제석산 수석공원 조성 등을 통해 보성군의 매력을 전국을 넘어 세계로 알릴 계획이다.

△안전, 환경, 경제 분야에서는 보성사랑상품권을 300억 원 규모로 발행해 골목상권을 강화하고, 탄소포인트제 가입 활성화, 슬레이트 처리지원, 자연재해 위험개선, 상하수도 정비사업 등 군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할 예정이다.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보성군 복합커뮤니티센터, 벌교문화복합센터, 신흥동산 종합개발 사업 등 대형 SOC 프로젝트 완성이 핵심과제로 선정됐다. /강종수 기자

완도군, 도 주관 읍면동 행정 평가 우수상

완도군 고금면이 최근 전남도 주관 '2022년 현장 행정 우수 읍면동'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읍면동 현장 행정 평가는 문화유산, 관광시설, 복지, 생활환경 등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해 우수 사례를 공유 및 확산하고자 2016년부터 전남도 내 297개의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평가는 독창적이고 타 우수 사례와 비교해 차별성을 갖고 있는지와 효과성, 연계성, 확산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하고, 1차 서면심사에서 10개 읍면동을 선정한 후 2차 발표가 이루어졌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고금면은 행정과 주민은 물론 유관기관 연계로 지역 문제 해결에 협력하는 등 자치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행정 체계 확립에 앞장선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어려운 이웃을 위한 고추장 담그기 사업, 취약 가구 이불 빨래 사업, 방충망 교체 사업, 우리 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 등 이웃 사랑 실천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폐가 철거, 독거노인 디딤 계단 설치, 고금면 주간 소식지 발간 등 촘촘한 행정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쓴 점도 인정받았다. /박나영 기자

고흥군, 노사상생 발전 워크숍 열기 '후끈'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최근 제주도 일원에서 공영민 군수와 장인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고흥군지부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상생 발전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행복한 직장, 살맛나는 고흥"이라는 주제로 상생의 노사 관계 구축으로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정착하고, 즐거운 직장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개최했다.

군은 제주 4·3 및 여순 10·19 사건에 대한 주철희 박사의 특강, 제주 4·3 역사유적지 탐방, 청렴 골든벨, 군수와 함께 하는 행복 토크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공영민 군수는 행복 토크쇼를 직접 진행하면서 군정 전반 및 직원 복지 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묻고 답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공영민 군수는 "민선 8기를 시작할 때부터 신바람 나는 직장, 출근하고 싶은 사무실을 만들고자 줄기차게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사무실이 더 행복한 일터가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직원들은 군수와 함께 오직 군민만을 바라보면서 고흥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종민 기자

장흥군 나눔복지재단 복지지원 공모사업 운영

장흥군 나눔복지재단(이하 재단)은 최근 장동면 '또박또박 한글방' 입학식을 시작으로 복지지원 공모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단은 주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지원 공모사업을 지난 2017년부터 꾸준히 시행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심사를 통해 10개 단체, 12개 사업의 우수한 복지사업을 발굴했다.

건강·환경·힐링·교육 등 다양한 주제로 원예교실, 한글로 다시쓰는 내 청춘, 수예 배우기, 찾아가는 환경공예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복지지원 공모사업의 프로그램들이 남녀노소 모두 배우고자 하는 주민의 평생학습과 군민들의 심신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백두연 기자